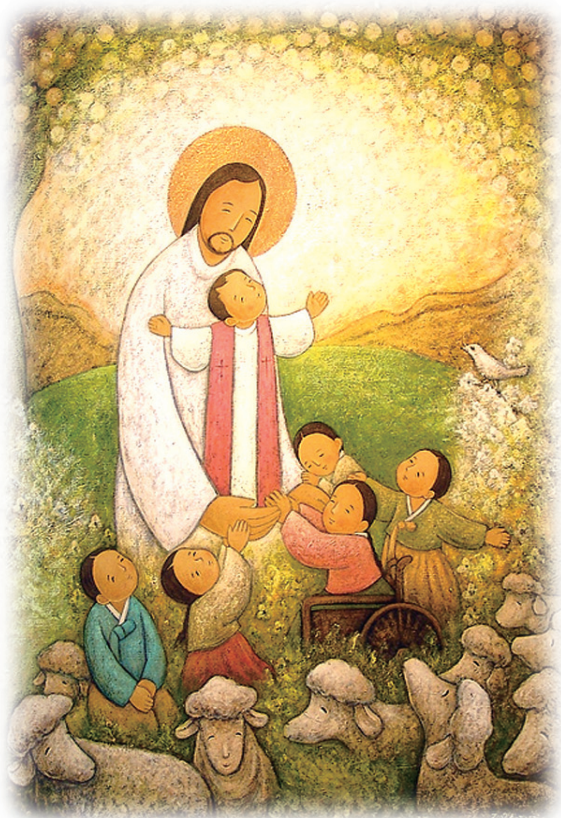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7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재물과 그 위험

(코헬렛 5,9-15)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1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재물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코헬렛 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먹어 치우는 자들도 많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그 주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좋지 못한 사업으로 그 재산이 없어지면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제 노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이 또한 고통스런 불행이다. 그가 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러니 그가 애쓴 보람이 무엇이랴? 바람일 뿐!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편리한 재화입니다. 직접 벼농사를 짓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쌀을 사다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옷을 만들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내 몸을 보호해줄 옷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집을 짓는 기술을 다 익혀서 건축을 하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머물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유익한 재화이지만 경계해야 할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할 때, 돈은 위험한 유혹이 됩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멋진 옷, 더 값나가는 집을 쫓아 맹목적으로 돈에 굶주리는 아귀로 변해가게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희망을 접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돈의 있고 없음에 그보다 더 값진 영혼을 빼앗겨 버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재물의 위험을 피해가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산 시문집 18권에서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장화비밀(藏貨秘密)은 막여시사(莫如施舍)**’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지키는 비밀이 있으니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녹아 있는 글귀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1티모 6,7-10)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어리석음은 자신을 파괴시키지만 베풀고 나누는 지혜는 이웃과 자신을 구원하는 웃음을 선물 합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2절을 부릅니다.



궁금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조들은 정말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모세오경을 구성할 때 사제 계통의 저자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족보를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열 개의 족보로 구성하여 사실상 온 창조 세계를 확대된 하나의 친족처럼 나타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종족을 함께 살아야 할 친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족보의 내용은 사실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사실 여부를 가릴 길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족보의 사실성이 아니라 족보와 그것을 둘러싼 성경 이야기가 전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5장의 족보에서 생명이 태어나 죽고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출생과 번성의 강복이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수명은 하느님의 강복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즉 긴 수명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강복을, 차츰 짧아지는 수명은 점점 죄가 심각해지고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장의 족보에서 특이한 경우는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은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습니다.(5,23) 긴 수명을 하느님의 강복으로 본다면, 다른이에 비해 짧은 그의 수명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백육십오 년은 완전한 삶 또는 충만한 생애를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꼭 차게 산 뒤에 사라졌는데, 이는 죽었다, 또는 하느님께 갔다는 표현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DNA를 건네 준 또 다른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흐르는 그 족보는 인간의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요한1,13)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 969년을 살고 죽은 므투셀라가 결코 부럽지 않죠?

주님안에서 우리는 하나!!

- 월영성당 7구역 1반 -

이 상 순 미리암 (월영성당 구역부장)

신마산 땃거리에 위치한 월영성당은 1998년 1월 월남성당에서 분리되어 경남대학아래 시민버스 차고를 개조하여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성전에서 첫 미사를 드렸고, 그로부터 십여년이 지난 2007년 8월 모든 신자들의 염원이었던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기공식을 가진지 10개월 만에 고풍스럽고도 세련된 멋진 성전이 완성되어 현재는 3,000여명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큰 본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월영성당의 소공동체는 7구역 17개 반이고, 형제회가 구역별로 7개 반으로 구성되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본당의 큰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영 소공동체는 주일 미사 후 모든 신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한 봉사, 부활절이면 본당은 물론 반별로도 계란을 삶아 이웃과 나눔으로서 친교에도 힘쓰며 본당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든직한 버팀목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구역은 7구역 1반입니다. 7구역 1반은 한 아파트 단지에 5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아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세대는 12세대 정도입니다. 심영선 루시아는 본당 여성연합회 차장과 교구 여성연합회에 몸담고 있어 바쁜 중에도 소공동체 장까지 맡았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는 열성파이기도 합니다. 반원들도 모든 일에 에스맨이라는 별칭이 따를 정도로 순명의 정신이 높아 본당 안에서 전례부장, 선교부장, 해설봉사, 레지오 단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으니, 열심 하지 않은 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참

여도가 높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활발하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구역 1반은 문자 한통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 서로 협조가 잘되어서인지 5월 본당의 날에도 게임, 장기자랑, 음식준비 등 모든 일에 공동체로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비신자 모집에도 모두 합심하여 이웃방문, 꾸준하게 후보 전달하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인사하기, 분리수거 술선수범 등 이웃에게 한발 먼저 다가서기 운동을 전개하여 2명의 예비신자를 인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천주교에 호감을 갖고 끝이어서 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매달 한번 소공동체 모임의 복음나누기 7단계계를 통하여 신앙이 깊어지니 말씀나누기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이나 기쁨도 함께 풀어나가며 공감과 힘을 얻어가고, 일상생활의 소소한 이야기와 정성스럽게 마련된 다과로 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라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나가며 이웃과의 친교와 소통을 통하여 복음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해봅니다.



〈월영성당 7구역 1반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